

다원예술분야

- 일시 : 2015. 1. 16(금) 10:00~17:00(1차)
2015. 1. 23(금) 10:00~17:00(2차)
- 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1차) / 다목적실(2차)
- 심의위원 : 이경미, 이준, 조성주, 최연구, 하동환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다원예술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원예술창작지원’, ‘융복합예술창작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등 총 7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7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256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0,684백만 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다원예술창작지원>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에는 총 194건이 지원 신청되었으며,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29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엄선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실험성(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5%),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5%)를 심의기준으로 삼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총 194건의 신청 사업들은 소규모의 수행성 프로젝트부터 대형 축제에 이르기까지 성격과 규모면에서 각기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었으며 공연이나 전시, 퍼포먼스, 출판에서부터 리서치, 기술 연구, 인체 연구, 커뮤니티 아트, 장소특정적 예술 등의 유형 중 몇 가지를 결합하여 동시적·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목표하는 관점과 주장을 담고 있었다. 그 결합의 방식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

는 우려 속에서 신중한 검토와 종합적인 논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2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국내의 다원예술 현장이 보다 활성화되어 각기 다른 의식과 태도들이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융복합예술창작지원>

융복합예술창작지원 분야 심의는 융·복합형 예술의 담론생산과 창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통섭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공모지원서 내용이 얼마나 부합되는가를 가장 우선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예술과 비예술 영역(인문사회, 과학기술 등)의 적극적인 융합적 예술 창작활동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심의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여러 지원자들의 창의적 고민과 노력이 보였지만 지원 금액에 비해 높지 않은 융합적 기술수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내용에 대한 중복, 그리고 아이디어에 비해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후 구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등 여러 보완점들이 심의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사업의 의도나 성과가 다원성 및 융복합 사업으로서의 설득력이 충분한 지원신청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공모에 응한 사업은 크게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체가 의심되거나, 비록 기술적으로는 실현성이 있다할지라도 제작의 수준에 머물 뿐 미학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로 나뉘어졌다.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오랜 의견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나 형태를 떠나 본 사업이 지향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아쉽게도 2015년 융복합예술창작지원사업의 해당자는 없음을 밝힌다.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총 19건이 지원 신청되었으며, 심의회의를 통해 총 6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국내 예술인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현장의 경향을 반영하듯 이번 신청 사업들에서 다각적인 시도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 사업들의 실험성과 예술적 진지함, 신청 예술가와 단체가 보유한 예술적 역량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술에 대한 기존 담론과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개척하기에 손색 없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았다.

심의에 있어서 주안점으로 삼은 것은 다원예술로서의 설득력과 예술형식으로서의 참신함, 해외 파트너의 전문성, 신청 예술인의 수행능력 및 예술적 수월성, 국내 해당 분야에서의 선정 사업의 기대성과 등이었다. 특히, 신청자의 기존 작업들이 일정

정도 내적인 연관성을 갖고 생산적인 발전의 경로를 밟아왔는지 살펴보았으며, 해외 파트너들이 단순한 장소 제공자나 형식적 협업자가 아니라, 신청자와 대등한 파트너십을 이루며 신청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청 사업의 주제 및 내용이 예술적으로 얼마나 새로운지 살펴보았고, 피상적인 장르 연계성 프로젝트나 홍보성, 전시성이 짙은 사업, 국제민간교류지원 사업에 예술성을 가미한 정도의 사업은 배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예술가들의 작업이 보다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지평을 넓히기를 기대하며 지역적 안배 또한 고려하였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총 6건의 신청된 사업 중 계획의 참신성, 충실성, 기대성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두 사업안은 사업을 주도해 갈 작가 및 기획자, 그리고 협력자들의 수행역량과 기획 방향에 대해 신뢰가 가는 사업안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 계획이 각 연차별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지, 다음 년도에 수행할 사업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심의 기준으로 삼았다. 2년차로 진입한 사업들의 경우, 1년차의 사업과정 및 성과, 첫해의 시행착오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바탕으로 2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간의 토론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금번의 공모사업에서는 신청인이 추구하는 작업과 레지던스 기관의 상관 관계 및 계획의 충실성, 참신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아쉽게도 총 5건의 신청 사업 중 1건의 사업만을 선정하였다. 심사 기준으로는 첫째,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의 애초 목표가 구체적인가, 둘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 흡수해서 과정적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울러 해당 레지던스가 본 작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사업의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예술가 및 예술작업과 상호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넷째,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예술적인 결과물은 어느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다원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